

제2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

인천형 '쉬었음' 청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

일시 2026년 1월 12일 16:00~17:30

장소 유유기지(JST제물포스마트타운 9층)

2025 현안연구

멈춤에서 도약으로!

인천시 '쉬었음 청년'의
노동시장 진입 지원 정책 마련 연구

인천연구원 민규량 연구위원

"요즘, 그냥 좀 쉬고 싶지 않나요?"

게으른 게 아닙니다.

치열하게 달렸거나,

달릴 곳을 찾지 못해 잠시 숨을 고르는 중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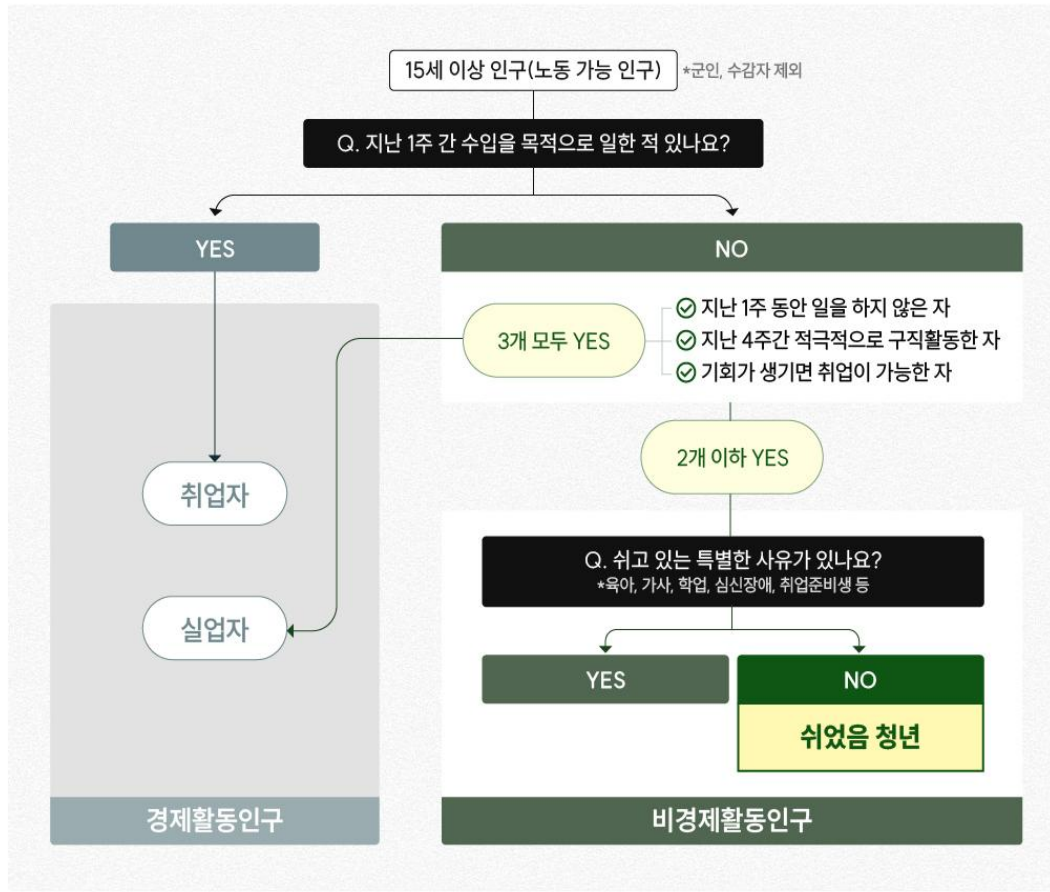
하지만 사회는 묻습니다.

"너 지금 뭐 해?"



'쉬었음 청년'이란 누구일까요?

“쉬었음 청년”이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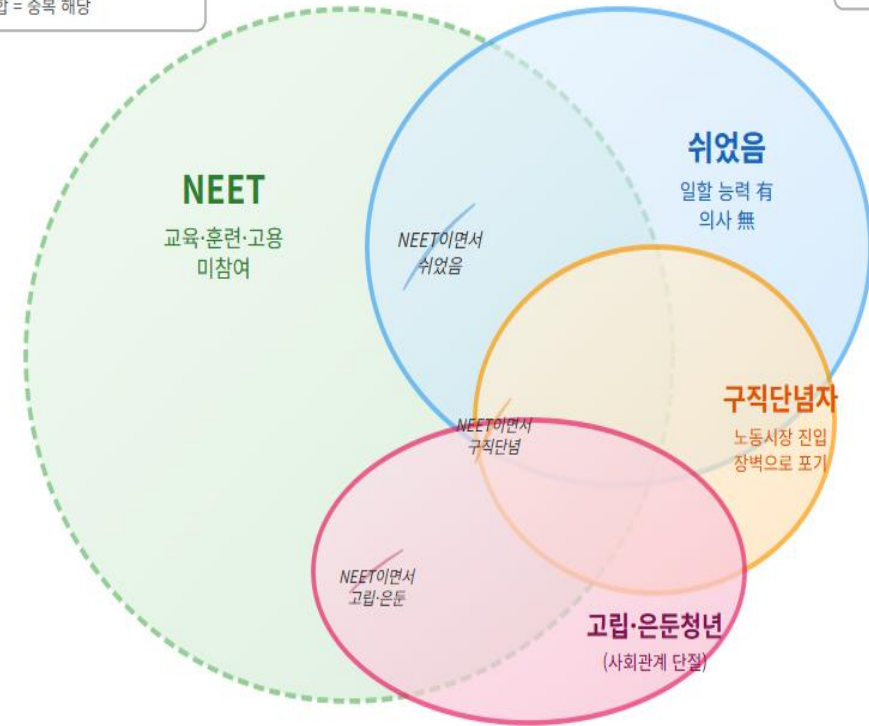


※ 중첩 관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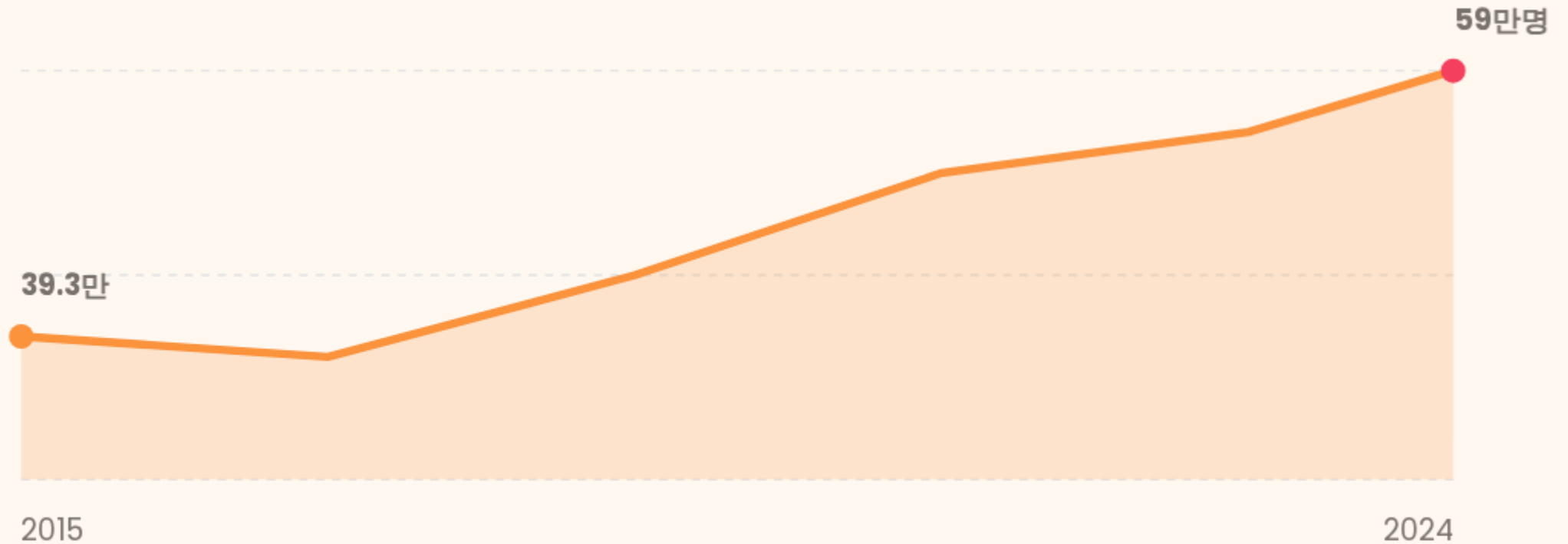
- 각 개념은 부분 중첩
- NEET 외 취업자/교육참여자 존재
- 교집합 = 중복 해당

※ 비NEET 포함 예시

- 재직 중 고립청년
- 단기 휴식 취업자
- 교육 중 구직포기자



59만 명, 10년 새 최대치.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.



청년 6명 중 1명은 현재 '쉬었음' 상태입니다. (10년 새 약 1.5배 증가)

쉬고 싶은 게 아니라, 원하는 곳이 없어서



● 34.1% 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움

● 20.0% 몸이 좋지 않아서

● 15.0% 다음 일 준비

● 30.9% 기타

"아무 데나 가긴 싫고, 갈 곳은 안 보이는 현실"

우리는 모두 다른 이유로 멈춰 있습니다

| 구직자 유형 | 특성 | 정책 연계 (주요 고려 사항)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취준-적극형 | 직장 경험 無, 구직 계획 有 | 직무 탐색 및 역량 강화 지원 (단기적 개입) |
| 취준-소극형 | 직장 경험 無, 구직 계획 無 | 구직 동기 부여 및 심리력 장벽 해소 선행 |
| 이직-적극형 | 직장 경험 有, 구직 계획 有 | 경력 전환 및 재취업 코칭 (맞춤형 연계) |
| 이직-소극형 | 직장 경험 有, 구직 계획 無 | 경력 활용을 위한 동기 회복 및 심리 지원 |
| 취약형 | 사회참여 회피형, 장애/질환, 가족 돌봄 책임 등 기타 유형 | 심리·관계 회복 (Recovery) 단계 선행이 필수적 |

인천이라서 더 힘든가요?

28.5%

전공 불일치

하고 싶은 일과
실제 업무가 다름

1/3

청년 유출

3명 중 1명은
인천 외 지역에서 근무합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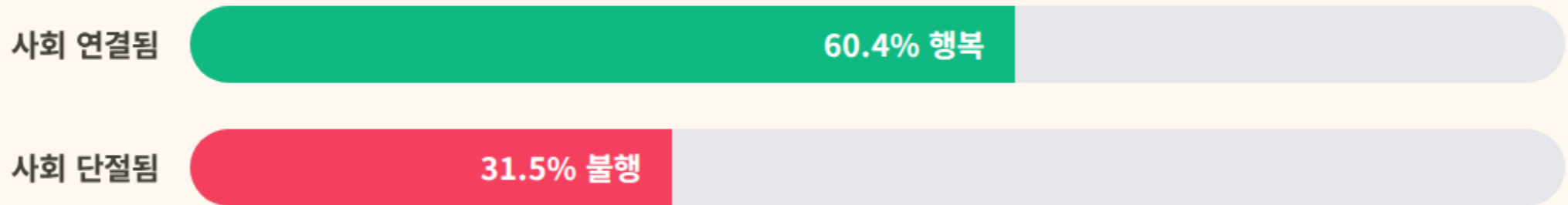
-40만

임금 격차

서울 대비
월 평균 임금

하지만 멈춤이 길어지면 '고립'이 됩니다

사회적 단절감에 따른 행복도 격차



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, 문밖으로 나오기는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.

| 기존 정책의 한계

"취업상담 받으러 오셨나요?
이력서 먼저 가져오세요."

기존 일자리 센터의 혼한 풍경

아직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, 등 떠미는 느낌 받으셨나요?
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.

억지로 끌지 않고, 천천히 함께 가야합니다

1

발굴 (Detection)

숨지 않게
먼저 찾아갑니다

2

회복 (Recovery)

가장 중요!
심리상담 &
자존감 회복 먼저

3

진입 (Entry)

부담 없는
작은 일거리,
봉사활동 경험

4

정착 (Settlement)

취업 후에도
적응할 때까지
케어

무엇이 필요할까요?



회복형 커뮤니티

눈치 보지 않고
실 수 있는 전용 공간



소셜 클럽

취업 스테디 NO!
취미/관심사 기반 모임



저진입 일경험

재택 소작업, 단기 봉사 등
실패 부담 없는 일거리



멈춤이 도약이 될 수 있도록

인천연구원에서 정책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

토론 주제

1

쉬었음 청년에 대한 인식

주변에 쉬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? 혹은 본인도 쉬어본 경험이 있나요?

2

쉬는 청년에게 필요한 지원

쉬고 있는 청년이 다시 시작하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?

3

청년 지원정책 경험

인천시 청년정책을 이용해본 적 있나요? 좋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은?

4

인천시에 바라는 점

인천시가 쉬었음 청년을 위해 꼭 해줬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?

자유롭게 이야기해주세요. 정답은 없습니다. 여러분의 솔직한 경험과 생각이 정책이 됩니다